

상장사 잇단 횡령·배임에 ‘거래정지’ 우려 일파만파

/뉴시스

올해도 상장사의 횡령·배임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횡령과 배임으로 거래 정지된 종목도 있어 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횡령과 배임 발생공시는 2022년 12건에서 작년 42건으로 급증했고, 올해도 지난달 말까지 25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횡령·배임으로 거래가 정지된 종목은 코스닥 상장사인 아진산업과 비피도 등 두 곳이다. 아진산업은 지난 2월 21일부터 거래가 재개됐으나 비피도는 두 달 넘게 거래정지 중이다.

공시된 횡령·배임 금액이 ‘자기자본의 5%(자산총액이 2000억원 이상인 대기업의 경우 3%) 이상, 임원의 경우 자기자본의 3% 이상 또는 10억원 이상이면 한국거래소는 해당 기업을 상대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한 후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상장을 폐지한다. 무엇보다도 거래소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는 길게는 2~3년 걸릴 수 있어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주

2022년 12건 → 지난해 42건
올해 지난달 말까지 25건에 달해
비피도, 두 달째 거래정지 상태
주주 자금 묶이는 등 피해 발생

들이 떠난게 될 가능성이 높다. 거래정지 기간 동안 주주들의 자금이 묶인 데다 상장폐지까지 간다면 투자자 등은 막대한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비피도는 자금업무담당직원이 81억 원가량 횡령한 사고가 터지면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돼 지난 6월 28일 매매 거래가 정지됐다. 횡령 금액을 회사가 이미 대부분 회수한 만큼 비피도가 최종적으로 상장폐지까지 갈 것으로 보지 않고 있다.

앞서 이화전기 등 이화그룹 계열 상장사 3곳도 전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거래가 정지됐다. 상장 폐지 우려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투자자들은 1심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같이 상장사의 횡령·배임은 오랫동안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코스닥 시장의 중소형 기업일수록 내부 감시 시스템이 취약할 뿐 아니라 외부 관심도 적고 주주들의 숫자도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외부의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배임 횡령 사고가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배임·횡령은 예측하기가 사실 상당히 어렵다”면서 “배임 횡령이 발생하면 결국은 해당 종목의 투자자들이 피해를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일단 배임 횡령 사건이 자주 발생하지 않도록 억제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번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를 복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횡령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적으로 예방을 해야 한다”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개인 횡령 사건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기업들에 대한 공시 의무가 적절한 수준에서 부과돼서 기업 정보들이 투명하게 외부로 알려질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이차전지 ‘바닥론’... 저가매수 투심 ‘꿈틀’

관련주 반등하며 ETF도 상승세
업황 회복시점 불투명... ‘주의’

올들어 큰폭으로 하락했던 이차전지 관련주가 최근 반등하면서 관련 상장지수펀드(ETF)도 상승세를 보였다. 그러나 전기차 수요부진으로 이차전지 업계가 실적 악화를 겪고 있는 만큼 일시적인 반등일 수도 있어 투자심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4일 코스콤ETF체계에 따르면 국내 상장된 이차전지 관련 ETF 19개의 평균 수익률은 4.51%로 집계됐다. 이 중 국내 이차전지 섹터 상승에 2배로 베팅하는 레버리지 상품인 TIGER 이차전지TOP10레버리지 ETF가 12.24%로 가장 크게 올랐다. 이 ETF는 이차전지 셀 업종의 LG에너지솔루션, 양극재 기업인 포스코퓨처엠을 비롯해 삼성SDI, LG화학, 에코프로 등 이차전지 산업군의 대표 기업 10종목에 투자한다.

에프앤가이드 이차전지 산업지수를 2배 따라가는 ETF인 KODEX 이차전지산업레버리지도 10.92% 오르며 높은 수익률을 보이기도 했다. 이밖에 AC E 포스코그룹포커스(9.18%), KOSEF K-이차전지북미공급망(6.10%), TIGER 이차전지TOP10(5.46%) 등이 양호한 수익률을 보였다.

이차전지 ETF 상승 배경은 이차전

지 주가가 바닥을 다졌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 기대감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다.

향후 이차전지 관련 전망에 대해 증권업계는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차전지를 다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이차전지 산업이 최악의 시점을 지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강동진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이차전지 업종은 최악을 지나고 있다”며 “배터리 가격이 저점을 지나는 3분기부터 전기차 판매도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긍정적인 전망과는 달리 전기차와 이차전지 업황은 적어도 내년 초까지 뚜렷하게 나아지기는 어렵다는 전망도 나왔다.

이우용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이차전지 주가의 바닥은 중장기 실적 컨센서스 하향 조정이 마무리되는 시점

이라면서도 “아직도 관련 기업들은 내년 이후 뚜렷한 가이던스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내년 전기차 시장 성장을 회복에도 불구하고 양극재 업종을 중심으로 실적 컨센서스가 추가 하향 조정될 여지가 높다면 주가 역시 추세적 반등을 기대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원관희 기자

STO 법제화 시동... 기대감에 관련주 ‘들썩’

‘美 증시 영향’ 코스피 급락장에도
핑거·갤럭시아에스엠, 상승세 기록
이달 중 개정안 발의 소식에 ‘관심’

지난 국회에서 문혔던 토큰증권(STO) 법제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안 재발의 기대감에 관련 종목들이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급등했다. 다수의 증권사들이 STO 사업 준비에 시동을 걸었던 만큼 시장에 주목도가 높은 모습이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3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증시에서 3대 지수가 일제히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코스피도 3.15% 급락했다. 다만 STO 법제화가 다시 재조명되면서 STO 관련주는 오히려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전날 STO 기술을 보유한 기업 ‘핑거’와 STO 플랫폼을 구축한 ‘갤럭시아메트리’의 지분을 보유 중인 ‘갤럭시아에스엠’은 나란히 상한가를 기록했다. 이날도 핑거와 갤럭시아에스엠 각각 17.95%, 0.38%씩 오르면서 급락장에서 살아남았다. 이외 관련주로 꼽히는 케이옥션도 8.24% 오르면서 이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이날 코스피·코스닥시장에서 주가가 하락한 기업의 비율은 약 91%다.

STO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전날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토큰증권 법제화를 위해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안’을 이달 중 대표 발의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다. 김 의원은 4일 국회에서 ‘토큰증권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입법 방향 세



ChatGPT에 의해 생성된 ‘토큰증권(STO) 관련 종목 주가 상승’ 이미지.

미나’를 개최하기도 했다. 토큰증권 법제화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추진됐다가 해당 법안이 국회 임기를 넘기면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당시 법안을 발의했던 윤창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코스콤 신임 사장으로 선임된 만큼 토큰증권 시장 활성화에 동력을 얻을 것으로 보여진다.

문건웅 코스콤 미래사업기획팀 팀장은 “코스콤은 작년년부터 토큰증권 플랫폼을 구축하고 증권사와 실제와 같은 테스트를 진행해 왔다”며 “법제화 진행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을 시스템에 반영하고, 금융기관 및 발행사를 위한 최적화되고 비용 효율적인 시스템을 개선·발전시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토큰증권은 금융당국의 토큰증권 발행·유통 주체 분리 원칙에 따라 발행과 유통이 각각 다른 증권사에서 이뤄져야 한다. 예를 들어 A 증권사가 토큰증권을 발행할 시 해당 토큰증권은 A 증권사가 아닌 B, C, D 등의 증권사에서 유통돼야 하는 것이다. 코스콤은 이러한 연결 작업을 돕기 위해 지난해부터

토큰증권 공동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다. 현재까지 키움증권, 대신증권, IBK투자증권, 유안타증권, BNK투자증권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밖에 대신증권은 지난해 조각투자 플랫폼 카사(KASA)코리야의 지분 90%를 인수했으며 한화투자증권, SK증권, 유진투자증권, 유안타증권, LS증권을 등을 비롯해 한양증권까지 경영권 매각 이후 STO 사업에 나설 것으로 알리면서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현정 키움증권 연구원은 “현재 발행되는 신종증권들은 모범 사례로서 추후 관련 시장 성장 시 토대가 될 것”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법제화까지 추진될 경우, 신종증권 등 토큰증권은 새로운 투자수단으로서 활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비금전신탁수익증권 및 투자계약증권과 같은 신종증권을 중심으로 가치 평가 사례가 다양하게 구축돼야 한다는 부연이다.

/신하은 기자 godhe@



유튜브 영상 제공



한투증권, 온실가스 감축사업 개발 박차

‘굿네이버스 글로벌 임팩트’와 맞손

한국투자증권은 재단법인 ‘굿네이버스 글로벌 임팩트’와 온실가스 감축사업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양사는 해외 각지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공동 개발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올 들어 아프리카 우간다 지역에서 공동 추진 중인 산림 황폐화 방지 프로젝트의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다양한 지역사회 기반 신규 사업을 개발하며 기후변화 대응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굿네이버스 글로벌 임팩트의 구호사업에 민간자금이 투입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양사가 보다 긴밀히 협력하며 글로벌 기후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진영 굿네이버스 글로벌 임팩트 대표는 “한국투자증권과 협력해 다양한 탄소배출권 사업과 자연 기반 솔루션 사업을 적극 추진하며 지속 가능 발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2021년 국내 증권사 최초로 탄소배출권거래제(K-ETS) 시장조성사로 선정됐으며, 이후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개발 중이다.

/허정윤 기자 zelkova@

금투협-서울시, 비상장 기업 자금조달 지원

오는 11일 DDP서 기업설명 행사

금융투자협회가 서울시와 함께 성장성이 큰 비상장 기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기업설명(IR) 행사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와 체결한 스타트업·중소·벤처기업 성장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 일환으로 오는 11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진행된다. 지난해 서울시 추천 스타트업 기업이 IR 대상에 추가된 데 이어 올해는 이노비즈협회가 추천한 이노비즈 인증 기업도 참여한다.

참여 기업은 컴플릿링크, 인터랙트, 누아, 솔메디스, 아이트릭, 윈니스코리

아, 참약사, 포크홀딩스 등이다. 증권사, 운용사, 벤처캐피털(VC) 등을 대상으로 참여기업들의 IR 발표 후 자율적인 네트워킹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또 서울시는 우수 IR 기업을 선정해 사업화 지원금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환태 금융투자협회 산업시장본부장은 “이번 IR 행사가 유망 비상장 기업 발굴과 투자 활성화로 연결되어 실효적인 성과로 이어지길 바라며 협회는 금융투자업권과 자본시장,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 동력 중 하나인 성장성 높은 중소·벤처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